

Experience Report (파견결과보고서)

성명	이현정	학과(전공)	바이오및뇌공학과
파견대학	동경공업대학	파견(참여)기간	2022.11.01 - 2023.02.11
파견 프로그램명	2022 가을-겨울 연구중심 교환학생 프로그램		

1. 출국 전 준비사항

A. 프로그램 지원과정

카이스트 이메일로 온 공고문을 보고 타대학에서 연구 경험을 쌓고자 지원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동경공대 연구실을 찾아본 후 1-3순위를 정해 하고 싶은 연구 주제를 지원서에 작성했습니다.

B. 파견 대학에서의 안내

프로그램 시작 날에 동경공대 캠퍼스에서 오타를 받았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증, 교내 와이파이, 수강신청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했던 혹은 참여 예정인 학생들과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연구에 대해서는 배정된 연구실 교수님과 미팅을 잡아 논의했고, 연구실 안내는 같은 연구실 석사 유학생인 튜터에게 받았습니다.

C. 비자 신청 (비자 유무, 신청방법, 소요기간, 경비)

90일 이상 일본에 거주해야 해서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출국 전 동경공대에서 비자 신청 관련 서류를 받았고, 국내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비자 발급은 일주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D. 항공권 구입 및 비용

인천-나리타 항공권 (수하물 15kg 포함) 편도로 구매하여 총 30만 원대였습니다. 귀국할 때 짐이 늘어서 추가 수하물 구매했습니다.

E. 보험 가입 방법 및 비용

캐롯 해외장기체류보험 온라인으로 가입했고, 비용은 12만원 정도였습니다.

F. 수강신청 (강의 수강도 함께한 경우) / 연구실 배정 (연구 참여 프로그램인 경우)

수강신청은 파견 시작 후 동경공대 포털 사이트에서 했습니다. 전공학점 대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과목을 카이스트 해당 과목 담당 교수님께 실라버스 확인받은 후 수강신청했습니다. 바이오및뇌공학과 의 경우, 대체 인정 가능한 과목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그 외 관심있는 전공 과목 및 일본어 과목도 수강했습니다.

연구실의 경우, 프로그램 지원 시에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실을 검색하여 1-3순위를 정해 지원했습니다.

프로그램 선발 이후 1-3순위 연구실에서 제가 하고자 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비슷한 연구를 하고 계신 교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다행히 새롭게 컨택한 연구실에서 오퍼를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 학업 관련 (A. 강의수강과 B. 연구참여 중 해당되는 것으로 작성)

A. 강의 수강 (수업 환경, 수업 내용, 수업 방식, 과제, 시험, 강의 평가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저는 전공 과목 3개(Physical biology, Computational brain, Electromagnetics)와 일본어 과목 2개 (Japanese oral expression, Intermediate Japanese)를 수강했습니다. 대면 수업도 있었고, 비대면 수업(Zoom 사용)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과제(리포트, 발표 등) 만으로 성적을 받았고, 퀴즈와 시험을 본 과목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드는 적었습니다.

B. 연구 참여 (연구 환경, 연구 주제, 연구 방식, 연구 결과 등) - 자세히 기재해주세요

저는 스즈카케다이 캠퍼스에 있는 요시무라 교수님 연구실에 배정되어 언어 관련 뇌 활동 디코딩 분석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매트랩으로 ECoG 데이터 분류 분석을 진행했고, 언어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을 찾고자 했습니다.

C. 학점 인정 (해당될 경우)

전공 2과목 학점인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개강 전이라 아직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3. 비용

A. 기숙사 (숙박)

본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두 교외 셰어하우스를 지원받았습니다.

B. 식사

혼자 식사 준비를 하기 애매해서 대부분의 끼니를 외식/테이크아웃으로 해결했습니다. 셰어하우스에 공용 주방이 있어 요리도 가능하긴 했습니다.

C. 기타 생활비

교통비 - 파스모(교통카드)를 충전해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편의점, 마트 등에서도 미리 충전해둔 금액으로 결제가 가능해서 편리했지만, 교통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도쿄 시내를 돌아다니면 대중교통비만 하루에 5천원 이상은 사용한 것 같습니다. 집-학교 구간 통학패스 3개월 치를 구매해서 파스모에 등록하여 해당 구간은 3개월간 무제한으로 탈 수 있었습니다.

여행경비 - 생활비 외에는 여행경비로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4. 학교 캠퍼스

A. 학교 안 시설 및 분위기

동경공대는 오오카야마 메인 캠퍼스와 스즈카케다이 캠퍼스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본교와 문지 캠퍼스 느낌입니다.

연구실은 스즈카케다이 캠퍼스에 있었고, 오오카야마 캠퍼스에는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스즈카케다이 캠퍼스에는 주로 연구실이 있고, 교내에 카페테리아와 도서관이 있습니다. 오오카야마 캠퍼스가 더 크고 연구실, 강의실이 더 많습니다. 카페테리아, 푸드트럭, 도서관, 문화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B. 주변환경 및 분위기

스즈카케다이 캠퍼스 주변은 거주지 뿐입니다. 전철로 한 정거장 가면 그랜베리 파크가 있는데, 식당, 쇼핑, 영화관이 있습니다.

오오카야마 캠퍼스 주변은 좀 더 변화합니다. 식당이나 카페가 더 많고, 전철 노선이 여러 개라 다른 곳에 가기 용이합니다. 전철로 한 정거장인 지유가오카에 맛집이나 쇼핑할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5. 언어 사용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연구실 교수님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자분과는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안 통합니다. 동경공대 학생들 중에서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제가 배정된 연구실에서는 일본 학생들은 랩세미나를 일본어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일본에 7년 거주했고 그때 일본어를 배워서 학업적인 것 외에는 일본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본어를 못했으면 불편한 부분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6. 기숙사/숙소 이용(입실/퇴실 시기, 주의사항 등)

프로그램 기간 전후 2일씩 세어하우스 이용 가능했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전날 일본에 도착하여 입실했고, 프로그램 수료 이틀 후에 퇴실하고 귀국했습니다. 입실 시 방 키는 우편함으로 전달받았고, 그다음날 세어하우스 매니저님께 오티를 받았습니다. 퇴실 시에는 방 정리는 알아서 해야 했고, 키는 매니저님께 말씀드리고 책상에 두고 나왔습니다.

방은 1인실이고, 화장실, 샤워실, 빨래방, 주방은 공용입니다. 방이 4층이었는데 샤워실이 1층에만 있어

서 좀 불편했습니다.

7. 학교 생활

연구, 수업 모두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수료 전에는 연구 마무리 및 수업 과제 때문에 바빴습니다.

8. 교환학생 지원 서비스 & 교환학생에 대한 관심도

파견 기간 동안 동경공대 캠퍼스 아시아 담당선생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9. 동아리 등 교내·외 활동

단기 파견 교환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경공대 출신인 아는 분께 동경공대 오케스트라 티켓을 받아 공연을 보러갔습니다.

10. 여행 등 개인 활동

11월 초에 같은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카이스트+칭화대 학생들과 후지산, 후지큐 하이랜드에 다녀왔습니다. 프로그램 초반에 다른 학생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 이후 칭화대에서 온 코스타 리카 출신 친구와 친해져서 디즈니랜드, 지브리 파크도 같이 가고, 나고야 여행도 함께 했습니다.

주중에는 학업에 집중하고 주말에는 도쿄 시내 이곳저곳 구경하고 공연 관람도 했습니다. 파견 기간 중 도쿄로 여행을 오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고, 중고등학교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귀국 전에는 카이스트 교환학생분들과 함께 삿포로, 오타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삿포로 눈축제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11. 그 외 도움 되는 정보 및 주의사항

학부생의 경우, 연구와 수업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두 쿼터 이상의 기간 동안 파견 가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기간상 쿼터 4에만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수업 시간이 짧아서 최소 학점을 채우려니 수업을 몰아서 많이 들어야 했습니다. 수업을 두 쿼터에 나눠서 듣는다면 연구에 집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교환학생을 한 번 다녀와서 본 프로그램에는 선발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차 이내라 지원이 가능했고, 이번 교환 프로그램은 연구 참여도 가능하여 아주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12. 파견 소감

타대학에서 연구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비록 파견 기간이 짧아 큰 연구 성과는 얻지 못해 아쉬움도 남지만, 해외 파견 및 연구 참여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얻은 것만으로 기쁩니다.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은 지원도 잘 되어 다른 학우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3. 사진 첨부



오오카야마 캠퍼스



셰어하우스 뷰



후지산



후지큐 하이랜드



디즈니랜드



지브리 파크